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은 의무헌금 봉헌 주일입니다. 의무헌금은 예배 전에 헌금함에 드립니다.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한 해의 교회 재정을 확정하고 지방회의 구역대표를 선출하는 구역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구역회 이후 인사구역회가 열립니다.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식사하실 때는 드실 만큼만 받아 가지기 바랍니다.

사 43:1~7 / 시 29 행 8:14~17 / 눅 3:15-17, 21-22
---

요 1:9-14
----------

오늘 식당 봉사 : 최현옥 김순자 공재량 이수정 권현숙 홍주희 이소순 임주빈  
 다음 주 식당봉사 : 정경례 강순배 신영신 김미현 김진선 김연실 김명순 김재환  
 오늘설거지봉사 : 양상철 박재란 류정옥 강세기 박혜남  
 다음주설거지봉사 : 이국노 김민화 박시내 최은미 조항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늘 우리보다 앞서 길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길은 어둠속에서도 빛을 만들어 내시며, 한 겨울 속에서도 봄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이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 속에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시간과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풍량이 몰아치는 밤바다처럼 늘 요동치는 이 사회를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다스리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평화와 정의의 시대를 꿈꾸며 사는 이 땅의 비천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들의 절규에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 헌금 영수기 ·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김신실 김정훈 이진영 김중수 이순정 김현주 노준우 류건형 이주은  
 서정순 오진훈 노순옥 이국노 김민화 이순용 이예서 이우원 이은자  
 이재훈 이지훈 이현순 임고운 정선희 정우선 조경자 조항범 오현정  
 홍춘숙 LK 무명3

### 감사헌금:

곽혜자 김경수 김동신 송하진 김성한 조영순 김용진 박효선 김정진  
 김중수 이순정 김필순 문금석 문복순 박옥식 박윤숙 조장형 박창운  
 허정윤 박홍재 봉소윤 송동준 김진경 안상용 양재성 임미심 유경순  
 윤석철 장혜숙 이범석 류정욱 이보람 이유일 김미희 이은희 이지은  
 이춘재 임승동 백혜숙 정복순 한완식 임정자 한인철 조윤숙 허호범  
 박성실 홍성식 이유리 무명5

### 녹색꿈헌금:

김기석 장원호 박성희

### 생일감사헌금:

안종일

	장혜숙 노순옥 최희영 장영숙 정경례 박홍재 권미숙 이순정 이형숙 안홍숙 정영선 박혜경 김재흥 이범석 신진식 장영숙	백혜숙 박성희 최경미 신영신 진정숙 곽권희 박미영 김금순 윤수진 오현정 서정순 조항미 오자영 이근식 곽상준 김세진	심	심
--	--	--	---	---

마음으로 읽는 글

## 겨울 바다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미지(未知)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그대 생각을 했던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 버리고/  
 허무의  
 불  
 물 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끄덕이며 겨울 바다에 섰었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남은 날은/ 적지만/  
 겨울 바다에 가 보았지  
 인고(忍苦)의 물이  
 수심(水深)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 김남조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언제나 어디서나 참된 기독교인으로 사십시오.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빚어주실 기대 없이 습관만을 따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일상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박효선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윤석철 장로	조지연 선생 서정순 집사

1월	영접위원	김인걸 김중수 이근식 홍복선 신영신 오자영
	헌금위원	방문성 박홍재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제소리

어머니가 낳은 나는 내가 아니다. 내가 낳은 내가 나다. 무한히 펼쳐진 이 세상이 여기가 아니다. 내가 선 땅이 여기다. 시간도 흘러가는 것은 내 시간이 아니다. 내가 깬 순간이 내 시간이다. 내가 깬 시간이 내 시간이요, 내가 선 자리가 내 입장이요, 내가 낳은 나만이 나다. 깬 나, 선 나, 새로 태어난 나만이 나다. 시간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 그러나 순간은 느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다. 공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입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그러나 새로 낳은 나는 나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죽지 않는 나를 가질 때 언제나 죽을 수 있고, 없어지지 않는 나를 가질 때 어디나 갈 수 있고, 죽지 않는 나를 가질 때 누구나 만날 수 있다. 나는 언제나요, 어디나요, 누구나다. 언제나 있는 나요, 어디나 있는 나요, 누구나 있는 나다. '언제'가 있는 동안 나도 있고, '어디'가 있는 동안 나도 있고, '누구'가 있는 동안 나도 있다.

나는 영원하고 무한하고 신성하다. 세상에 나를 이길 자가 없고 나를 누를 자가 없고 나를 무시할 자가 없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두려워하는 자만이 참 나를 살 수가 있다. 나는 나다. 언제나 나요, 어디나 나요, 누구나 나다. 나를 알고 나를 찾고 내가 되어 나를 사는 자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은 이미 천국에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요, 영원을 사는 사람이다. 태초에 내가 있었다. 내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이 요한의 외침이었다.

## 하루살이

사람은 어제를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을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것도 아니다. 사람은 하루를 산다. 아침을 살고 대낮을 살고 저녁을 살고 한밤을 산다. 어제를 그리며 사는 것도 아니고 내일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오늘에 쫓기며 사는 것도 아니다. 하루를 사는 것뿐이다. 하루 속에는 아침과 저녁이 있을 뿐, 어제와 내일은 없다. 하루 속에는 지혜와 사랑이 있을 뿐, 삶은 없다. 하루 속에는 어둠과 울음이 있을 뿐, 있음과 없음은 없다. 세상에 새 물이 있을 리 없지만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 땅속을 오랫동안 거쳐 나오면 어느새 새 물이 되는 법이다. 일체 의식적인 것이 끊어져버리고 오랫동안 무의식의 세계를 헤매고 가다가 초의식의 세계로 터져 나올 때 어제니 오늘이니 내일이니 하는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의 하루살이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치 깊은 단잠을 자고 깨는 젊은이처럼, 사람에게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는 법이다. 얼핏 보면 바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의 삶을 찾아서 가고 또 가다가, 나중에는 가는 데 지쳐서 가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을 때, 돌연 바위가 터지고 인연이 끊어지고 꽃과 잎이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떨어져 나간 후 하나의 참 삶이 터져 나온다.

낡은 세상을 깨쳐버리고 새로 나온 새사람, 그것이 하루살이다. 하루를 사는 것뿐이다. 하루 속에는 삶도 없고 죽음도 없고 몸도 없고 마음도 없다. 다만 일체의 상대가 끊어져버리고 하나의 절대가 빛날 뿐이다. 인생은 본래 하루살이다. 하루살이가 하늘살이요, 하늘살이가 하루살이다.